



신규아파트단지에 ‘전자책 도서관’ 늘어 지난 해 5개사 8만 세대서 올해 14개사 33만 세대로 확대

최근 대형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가 전자출판업계의 새로운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건설사들이 앞다퉀 단지내에 전자책 도서관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두 배 이상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 시장을 살펴봤다.

1년 만에 서비스 세대수 4배 가까이 늘어

관련업계에 따르면 건설사들이 신규 분양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전자책 도서관을 구축하는 것이 불붙기 시작한 것은 지난해부터다. GS건설을 시작으로 신일, 신성건설, 영조주택, 진흥기업 등 5개 건설사들이 신규 입주민 약 8만 세대를 대상으로 전자책 도서관 서비스를 개시한 것.

이 같은 수치는 정확히 1년 만에 3배 가량 확대됐다. 5개 건설사에서 도입한 전자책 도서관이 1년 후인 지난 5

월 기준으로 14개 업체로 늘어난 것이다. 증가한 것은 건설사 숫자 뿐만이 아니다. 올해 5월 전자책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30만 세대로 지난해 8만 세대와 비교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다.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 확산, 왜?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이 이처럼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은 왜일까. 전문가들은 시공간 제약 없이 활용 가능하다는 편리성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전자책 도서관의 경우 1년 365일, 24시간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필요한 책을 대출하고 열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집의 PC, 회사, 학교 등 다른 곳에서도 접속해 전자책을 읽을 수 있다.

여기예다가 향후에는 휴대폰이나 PDA에서도 책을 읽을 수 있게 돼 전자책 도서관이 설치된 아파트 입주민들



〈표 1〉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 구축 현황

| | |
|----------|--|
| 2006년 5월 | 신성건설, 신일, 영조주택, 진흥기업, GS건설 등 5개사 (약 8만 세대) |
| 2007년 5월 | 경북개발공사, 롯데건설, 신성건설, 신일, 엠코, 영조주택, 우미건설, 진흥기업, 한양, 한화건설, GS건설 등 14개사 (약 33만 세대) |

〈표 2〉 건설사인터넷 사이트

| | |
|--------|---|
| 경북개발공사 | http://ebook.gbdc.co.kr |
| 롯데건설 | http://ebook.lottenc.com |
| 신성건설 | http://ebook.misoziun.net |
| 신일건설 | http://ebook.goshinil.co.kr |
| 엠코 | http://amco.dasangng.co.kr |
| 영조주택 | http://ebook.queendom.co.kr |
| 진흥기업 | http://ebook.chinhung.co.kr |
| GS건설 | http://ebook1.ezville.net |

은 유비쿼터스 독서 환경을 경험하게 되는 셈이다. 전자출판업체인 북토피아 이상수 홍보팀장은 “문고 설치에 따른 공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도서의 훼손, 분실에 따른 손실을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도 건설사들로 하여금 아파트 단지내 전자책 도서관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하는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아파트에 대한 기존 인식의 변화 또한 전자책 도서관이 확산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잠자고 쉬는 단순 휴식공간 개념에서 비즈니스와 문화생활을 함께 영위할 수 있는 복합적인 공간으로 그 개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규 아파트에 설치된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적극적으로 활용, 각종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고 이를 서비스에 접목시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는 건설업계와 정부의 노력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업계관계자들은 풀이하고 있다.

입주민 인증만 거치면 즉시 이용 가능

이용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전자책 도서관을 도입한 건설사의 전자책 도서관 사이트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하면 된다. 입주민 인증 여부 절차만 거치면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하다.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되면 검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전자책을 찾아 대출할 수 있다. 이 때 전자책을 읽을 수 있는 리더(reader, 일종의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한다. 설치되는 전자책 리더 프로그램은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아파트 전자책 도서관의 대출 기간은 대략 5~7일 정도이며 대출한 도서의 반납도 매우 편리하다. 일반 도서관처럼 대출 도서를 반납기 위해 직접 도서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전자책 도서관에서 대출한 전자책의 경우 시간장치(time-lock)가 내장돼 있어 대출 기간이 지나면 자동 반납처리 된다.

김치원 기자 kcw@print.or.kr